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도약계기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진우



「저탄소 녹색성장」비전 발표(2008.8월)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집중 투자한 결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도약하였다. 2007년~2010년 동안 기업체수는 2.1배, 고용인원은 3.7배, 매출액은 6.5배, 수출액은 7.3배, 민간투자는 5.1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0년말 총 212개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 중 150개(70.8%)가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기침체 우려, 중국의 저가공세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면서 새로운 위기요인에도 직면하고 있다. 각국의 공격적 신재생에너지 투자(green race)로 인한 공급과잉 상태에서 유럽발 재정위기가 계속될 경우 글로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전망이다.

너무 빠른 시일 내에 급성장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구조적 기반 약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은 거의 기반 상실 정도로 심각하다. 쉽게 말해서 도저히 중국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생존문제이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한 후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켜 '신재생에너지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극심한 경기침체와 격렬한 경쟁에 따른 수익 악화 압력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세계 최첨단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기술 강점이 없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계기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가치사슬 속에서 핵심이 되는 부품 및 소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날로 치열해지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업육성 정책은 크게 전략적 R&D 및 사업화,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시장의 수요가 아닌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우리기업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기전자, 화학, 기계 등의 기술력을 활용한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시장침체기에서는 설비 설치 및 보급보다 차세대 기술개발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